제611호 1989년3월4일 창간 2001년1월14일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국장 : 이형수

2001년 청지기 훈련

이번 주, 수요일(17일)과 목요일(18일) 7시

전교인을 대상, 수요 1부 예배후 모임 자제하고 저녁에 모두 모이도록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자' (강사:김성관 위임 목사)

2001년도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번 청지기 훈련은 충현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인 셈이다. 젊은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도록 피차 마음을 모아보자.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며, 한 아버지를 향해서, 한 성령을 요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자.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영혼들 위에 부어지도록 사모하고 또 사모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 요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날들을 꿈꾸어보자. 그리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 2:14)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힘차게 불러보자

제6회 전국 찬양대원 성악 강습회

1월 17일(수) 14시부터 20일(토) 13시까지(3박4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늘 아버지께 속한 주의 형제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속과 은총에 매인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세속의 노래가 아니며, 자아성취나 열심의 표현도 아니다. 주를 향한 찬송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며,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향해 그의 백성들이 피묻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는 승리의 선언이다.

일반 찬양대원과 독창자를 위한 제6회 전국 찬양대원 성악 강습회가 실시된다. 찬양위원회 주최로 실시되는 이번 강습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전국 찬양대 강습회를 통해서 전국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더욱더 영감있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다 이루었다"(요 19:30)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보고 철저하게 실패한 자라고 여겼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그것을 증명하며, 실제로 예수는 죄인의 신분으로 인생을 마감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의 선언은 자기망상에 사로잡힌 불쌍한 정신병자의 고백으로 취급할만 하였다. 그 까닭에 "다 이루었다"는 짧은 선언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 그 한마디에 진정한 승리와 참된 자유, 그리고 오랜 세월을 인내하신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가 거대한 힘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짧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으며, 그는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였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라고(요 19:28). 그렇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 구속의 언약이 거친 십자가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으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마침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신 것이다(요 1:29). 그가 죽음의 현장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현장으로 뒤집어 버리셨다.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주의 승리하심에 무슨 말을 더하랴! 그래서 어린 양은 진정한 왕의 장례식을 치르셨다. 언제나 그렇듯 믿음의 백성들은 선한 왕을 향하여 자발적이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였고, 영생을 물었던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식을 치렀다(요 19:39). 그것은 모두가 잠든 밤에 은밀한 곳에서 진정으로 왕을 향해 무릎꿇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다. 당신은 "다 이루었다" 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는가?

2001년도 전반기 충현장학생 신청안내

설명회 : 1월 27일(토), 오후 1:30, 제2교육관 4층

충현장학회에서는 2001년도 전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으로 키워나가고 또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천국일꾼이 양성되는 은혜의 역사가 되도록 온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바란다. 특히 장학생신청 설명회를 통하여 신청 당사자와 학부모 담임교사 등 관계되는 모든 이들에게 선발기준, 서류작성요령, 논술면접 요령 및 시간장소 등 신청에서 선발까지 꼭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설명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선발과정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울러 전액장학생 선발에 대한 것까지도 전달할 예정이므로 해당자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서 참고하기 바란다.

① **서류 접수 : 1월 21일(주일) - 2월 4일(주일), 3주간** ② **설명회 : 1월 27일(토), 오후 1:30, 제2교육관 4층**
③ **논술, 면접 : 2월 10일(토), 오전 10시, 제1교육관 5층** ④ **문의 : 교육국(교육관 104호), 552-4678(구내 473)**

교역자 인사

지난 주 당회를 통해서 교구와 교육 부서를 섬기게 될 여전도사와 교육전도사의 이동과 임명이 있었다. 여전도사는 강덕필 전도사(56년생, 16교구 부지도), 김정신 전도사(56년생, 대학부 부지도), 장혜구 전도사(54년생, 청년1부 부지도), 조옥자 전도사(고등부 부지도 전임), 한영준 전도사(11교구 부지도)를 임명하였고, 교육전도사에는 박철홍 전도사(고등부 부지도), 김영진 전도사(74년생, 중등1부 부지도), 김경배 전도사(64년생, 고등부 부지도)를 각각 임명하였다. 새로운 교역자와 부서를 이동한 교역자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강덕필 전도사 김정신 전도사 장혜구 전도사 김영진 전도사 김경배 전도사

교회행정 및 공문서 작성 요령 교육실시 오늘 3시30분, 갈릴리홀에서

오늘 오후 3:30에 갈릴리홀에서 당회 서기부 주관으로 교회행정 및 공문서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각 부서의 공문서 작성에 대한 실무적인 것이며, 교육 취지는 일선에서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물론 실무요원들이 일관성 없는 공문서 작성으로 업무처리 지연은 물론 당회 안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바른 행정과 행정의 체계화로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각 부서의 해당자들은 시간과 장소를 잘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교육대상은 당회원 및 각 기관 임원, 서기, 처장이다.

신학 칼럼

죽어야 산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사는 꿈을 꾼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 배우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적성에 맞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불현듯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오면 당황한다. 죽음은 저주받은 사람에게나 찾아오는 것, 피해야 할 것,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무관심하게 살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충격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땅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인지 생각해보라. 사는 동안 병들고, 염려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마저도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시 90:10).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런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죽음을 명령하셨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왜 죽음이 사랑의 명령인가? 성자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한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이 아니요 선물이다. 인생의 종결이 아니요,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예수님이 건설하신 천국에서 영광의 삶으로 영생하는데 어찌 죽음을 저주라 말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남은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예수밖에서 살아가면 산 자 같으나 영 죽은 자가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죽어가면 죽은 자 같으나 영생하는 자가 될 것이다. 참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죽으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지금 죽으라.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처럼 죽으라. 그러면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남은 인생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 광 진 (목사, 2교구 지도)

Sermon for next week

Paul's First Prayer

(Acts 9:11)

"Jesus told Ananias, "Get up and go to the street called Straight, and inquire at the house of Judas for a man from Tarsus named Saul, for he is praying"

On his journey to Damascus, Paul met Jesus. His mission was to seek and capture as many Christians as he could find there, so that he could bring them back to Jerusalem for some serious persecution. His threats and murder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in Jerusalem had caused many to scatter abroad. Paul wasn't satisfied with the Jerusalem results; he wanted to go to Damascus and capture more Christians. He was a proud man. He was one of the best students of Gamaliel, which is life saying that he was at the top of his class at Harvard or Yale. He knew his stuff and he knew it well. Unfortunately, his brilliant education didn't afford him the truth. He was travelling to Damascus blinded by darkness, until he met Jesus. After meeting Jesus, he was literally blinded by a light from heaven!

Part of Paul's main objective, to seek out Christians, was overwhelmingly fulfilled in meeting Jesus on the road to Damascus! He met Christ! Even though Paul was against Jesus, Jesus met him on that road to Damascus. He gave him a wonderful question,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v. 4)? This question revealed Paul's hard heart, and at the same time softened it. Paul kneeled down on the ground and asked the Lord, "Who are You, Lord?" and the Lord responde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v.5). For three days Paul went without sight, and he neither ate nor drank. For three days his soul was on fire, hearing the words spoken to him by Jesus. And then an amazing thing happened. He began to pray.

Immediately, Jesus heard his prayer. From heaven, Jesus descended unto Ananias, a disciple, and Ananias responded, "Here I am, Lord" (v.10). Jesus told Ananias, "Get up and go to the street called Straight, and inquire at the house of Judas for a man from Tarsus named Saul, for he is praying" (v. 11). Amen! Can you imagine the announcement in heaven that Saul was praying? All the angels must have done a double rejoice song! Undoubtedly, Ananias was astonished at this request because Saul was a novel to God. How could such mercy come to Saul? But Saul had started praying and God heard his prayer. Not only did God hear his prayer, but He knew the street name where Saul was living. He knew whose house he was staying in. He knew that Saul was from Tarsus. He knew Saul was praying. What a wonderful, wonderful thing. In heaven, a sinner's repentant tears are better than all the diamonds in the world. Paul's cry, "Oh Lord have mercy upon this sinner" was wonderful music in heaven. Before he even finished, the Lord answered him. While he spoke, the Lord listened. Without any doubts, Jesus was so happy! He told Ananias, "he is praying"! What joy, what unspeakable joy.

Jesus sai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that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intelligent and have revealed them to infants. Yes, Father, for this way was well-pleasing in Your sight" (Mt. 11:25&26). Jesus' way is so simple, yet not understandable to those without faith, no matter how smart they are! And for those with faith, like Ananias, its simplicity can be surprising. Ananias couldn't believe that God wanted him to lay hands on Saul, anyone but Saul. He told God that it was Saul who harmed His children in Jerusalem. Moreover, he conversed with the Lord about the sheer fact that it was Saul who now wanted to harm the saints in Damascus. Ananias was likely thinking, "And you want me to go to this house? I'm going into the Lion's Den. Lord, it was Saul who killed Stephen, and it's Saul who wants to kill me. Lord, what are you talking about?" Ananias argued with the Lord, but the Lord had already spoken, "behold he is praying".

This wasn't the first time Paul was on bended knee. He had plenty of experience praying to God. As a Pharisee, Paul prayed twice a day in the Temple. His prayer was probably something like this, "Lord thank you that I'm not like others, that I am different and pray to you, and fast, and tithe. Oh Lord thank you that I'm better than others". No, the Lord said, "for he is praying" now, not then. This is the evidence of Jesus Christ. Before, Paul prayed for nothing, but now he truly prays. He met Jesus and Jesus is listening, "behold he is praying".

Paul's sight was taken from him on the Damascus road. He was blind. "So Ananias departed and entered the house, and after laying his hands on him said, 'Brother Saul, the Lord Jesus, who appeared to you on the road by which you were coming, has sent me so that you may regain your sight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v. 17). In Damascus, everyone referred to Saul as Saul. But Ananias called him "Brother Saul".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means that Saul was forgiven and accepted by Christ. Furthermore, Ananias is a witness to the fact that Saul had indeed met Jesus and that Jesus had indeed blessed Saul. Saul prayed and he got an answer. His sight was recovered. He experienced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What a wonderful first prayer. Paul confessed his faults; he confessed his rebellious actions against Jesus, and humbly prayed. God listened. A wonderful, wonderful miracle happened: a persecutor of Jesus became a servant of Jesus. Paul's second objective, to capture Christians, was overwhelmingly to be fulfilled in a completely different manner! The Lord would use him as His chosen instrument to bear His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kings and the sons of Israel, to bring them to Him, not for persecution, but for redemption.

My dear, dear friends, God hears your sincere prayers. Heaven listens to those who have met Jesus and confess their sins before Him. Jesus can transform the hardest of hearts! He can change the worst of sinners into the greatest of saints! Amen! He knows everything about you. He knows who you are, where you are, and how you're doing right now. For those who don't know Him, He is calling out your name. Listen and hear His voice. For those who know Him, He hears your every prayer and answers each one for the glory of God. Amen!

다음 주일 설교

김 성 관 목사

바울의 기도

(행 9:11)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진리에서 떠난 열심

다메섹으로 향하는 여행길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임무는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고 발견하는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끌고 오는 심각한 박해를 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그의 위협과 박해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멀리 흩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진 결과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가서 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만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에서 자기 반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질을 알았고, 그것을 잘 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뛰어난 교육은 그를 진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도 어둠에 갇힌 영적인 눈먼 자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는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에 의해 글자 그대로 장님이 되었습니다.

찾아오신 십자가의 주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목표의 일부분이었던, 그리스도인 색출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압도적으로 끝이나 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예수를 대적했으나, 예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는 놀라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4절). 이 질문은 바울의 강팍한 마음을 드러냈고, 동시에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땅에 무릎을 꿇었고 주를 향하여 "주여 뉘시오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5절). 눈이 먼 바울은 사흘 동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그의 영혼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불타 올랐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된 고백의 시간

예수께서는 즉시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10절).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11절). 아멘! 여러분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들려진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천사가 갑절의 기쁨으로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아나니아는 이 요구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에게 대항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러한 자비를 누리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사울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살고있는 거리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머물러 살고 있던 집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소에서 태어난 것도 아셨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셨습니다. 놀랍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에서 죄인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탄식은 하늘에서는 놀라운 음악이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동안에 주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예수는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기도 중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이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까?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

바울이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성전에서 하루에 두 번씩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아마도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그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릅니다. 당신께 기도한 일이나 금식한 일, 그리고 십일조를 드린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기도 중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증언입니다. 전에 바울은 허탄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보라! 그가 기도 중이다".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마 11:25, 26). 예수를 따르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결코 인간의 명석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길의 단순함은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사울이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사울이란 자는 지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해를 입히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관해서도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내가 사울이 머물러 있는 집에 가길 원하신다는 말인가? 그 일은 사자의 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일텐데!" "주님!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듯, 나를 죽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나니아는 주님에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보라! 그가 기도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에서 형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17절). 다메섹에서 모든 사람은 사울을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를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울은 그리스도에 의해 용서받고 용납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나니아는 사울이 진실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서 진정으로 사울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다시 밝아졌으며, 그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바울은 그의 죄를 고백하였는데, 예수를 대적하는 행동에 대해 고백하였고 겸손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이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생애가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예수의 포로가 되어 완전히 다른 태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으며, 박해가 아니라 대속을 전하며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들으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천국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는 가장 악한 죄인을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는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주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음성에 귀기울이시고 들으십시오. 주님은 그를 아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 사람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기적인 선교

우간다 단기평신도선교사 추 은 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

그렇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모든 것이 끝나는 재림의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구요? 누구는 거룩의 사모함이라고 포장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 땅에서 기쁨의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언제나 담담하죠.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눈에 띄었을 때 '바로 이거야!' 라고 쾌재를 불렀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용서와 그 큰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교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 달라며 우간다로 나갔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걸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랑이 못 돼요.

그러나 복음이 쓰레기 취급받는 것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롬 11:25).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그들조차도 완악하게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이방인 곧 나와 같은 사람을 충만한 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충만한 긍휼와 그 아픔을 가슴에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 안에 들어와 그 진리를 더 실감나게 경험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긍휼함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복음이 무감각하게 느껴집니까?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까? 내 안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하나님 면전에서 살펴보십시오! 멀리 나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중인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시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까요! 내게서는 이기적인 것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여 그 안으로 들어 올 때, 친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 우간다! 그 땅 사람들의 약 80%가 에이즈 감염자 또는 보균자입니다. 그들이 질병으로 죽어 가는 수보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 가는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1. 단기선교소식

단기선교가 연이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주에는 스리랑카와 일본 단기선교팀이 출발하였으며 LMTC팀이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다. 스리랑카 단기선교팀은 고등부 학생이 주축이 되어 대학가 전도사역과 노방전도, 심방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며 일본 단기선교팀은 농아인 대상 선교를 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수단, 방글라데시팀이 18일, 몽골팀이 19일에 출국하며 일본팀이 17일, 스리랑카팀이 20일 귀국한다. 계속되는 단기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 지도록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1년 간각 선교지에 나아가 선교사역을 감당할 단기평신도선교사들도 맡겨진 선교지로 출국을 하고 있다. 지난 주에 스리랑카로 파송 받은 이소영 단기평신도선교사가 출국하였으며, 우간다 추은희 단기평신도선교사는 11일, 수단 권요셉, 최은아 단기평신도선교사는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단기평신도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란다.

2. 선교주일(28일)을 맞이하여 찬양연습

시간 : 주일 오후3시 40분~4시 40분
날짜 : 1월 7일, 14일, 21일, 28일
장소 : 아멘홀
대상 :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전원

3. 구정기간 동안 외선부 겨울 수련회

외선부 겨울 수련회가 오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1박 2일 동안 충현기도원에서 '심자가로 새롭게 하소서' 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구정을 맞아 더욱 외로운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절기간이므로 많은 교사들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김 민 정 (대학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장 많이 말한 단어는 아마, '엄마, 아빠' 가 아닐까…? 그러나 혜심원 아이들은 '선생님' 이란 말에 더 익숙하다.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고 전하는 우리는 '돌베개' 라는 대학부 소그룹에 속해 있다. 혜심원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저 선생님의 역할만을 해 주었지만 점차 그들과 가까워지고 기도로 품으면서 아이들에게 한없이 나누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명절에 가족과 고궁에 놀러 나온 아이들, 어린이날에 선물을 한아름 안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혜심원에서 텔레비전만 바라볼 아이들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지난 12월 28일 돌베개는 제 2교육관 1층에서 일일찻집을 열었다. 매년 혜심원 사역비 마련을 위한 행사로 준비되는 일일찻집인데, 교회 안팎의 많은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제를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혜심원에 있는 38명의 영혼들이 많은 기도의 후원자를 갖게 되는 귀한 기회였다. 준비와 진행 과정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많은 사람들과, 주님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한 돌베개 지체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일일찻집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 정신없는 주방 속에, 화려한 무대 조명 앞에, 후원금이 쌓이는 카운터에, 사람들의 흘어지는 웃음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 혜심원 아이들의 마음속에 계셨고…. 두툼한 봉투를 가지고 온 사람들, 단순한 즐김의 자리로 여기는 사람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일일찻집 때 온 힘을 다해 섬긴 귀한 돌베개 지체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과 기도제목이 들어 있는 책갈피를 받아 들고 아이들의 기도 후원자가 되리라 다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한 영혼을 위해 섬기는 귀한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지금은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변화를 다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계셨다 ….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일서 4:7-8)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나온자 천국갈 수 있잖아요

영적전쟁

장 순 옥 (집사, 청년1부 교사)

아침부터 날씨가 흐리고 몸도 나른하고… '오늘은 병원전도 가는 날인데 왜 이렇지?

지난해 10월 어느 토요일이었다. 그날도 청년 1부 병원전도팀과 함께 병원전도를 가는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더니 교통사고가 났다. 다른 날과 달리 차를 몰고 병원전도를 가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난 것이었다. 오후 3시 반이 약속이었는데 경찰이 오고, 실랑이가 오가는 바람에 약속시간을 훨씬 지나고 말았다. 참 가는 길이 멀고도 험난했다.

이런 것이 사탄의 방해가 아닐까? 정말 그랬다. 그날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을 만날 수 있었다. 오십이 가까운 나이에 간경화 말기환자였다. 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심을… 그럼으로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했고, 우리는 함께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그 병상에 다시 갔을 때 그 여인은 이에 세상을 떠난 후였다. 이 시간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요즘도 나는 토요일이면 주님의 도구가 되어 병원에 간다.

사탄의 방해가 느껴질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2001 교회 주요행사일정

1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거울성경학교/거울수련회	교육위		1~2월
		동기전도대 파송	전도위	교구위	1~2월
		단기선교 파송	선교위		1~2월
		단기 평신도선교사 파송(9명)	선교위		
		경로심방	교구위		1~2월
		지역모임	교구위		1~2월
1	월	신년예배	예배위		
7	주일	제1차 성찬식	예배위		
10	수	정기 당회	당회 서기		
17-18	수-목	청지기 훈련	성경연구원	교구위	
17-20	수-금	제6회 전국 찬양대원 성악강습회	찬양위		
28	주일	선교주일	선교위	교구/2교위	

2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거울성경학교/거울수련회	교육위		1~2월
		동기전도대 파송	전도위	교구위	1~2월
		단기선교 파송	선교위	선교위	1~2월
		전반기 장학생 선발	충현장학회		
		제1교육관, 기도원 개보수 공사	건축위원회		
		경로심방	교구위		1~2월
		지역모임	교구위		1~2월
7	수	정기 당회	당회 서기		
25	주일	제1차 학습세례식	예배위	교구위	

3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목사, 장로 기도회	당회 서기		
		교역자 수련회	교역자회		
		대심방	교구위		3~6월
		남성구역장 훈련	교육훈련원	교구위	3~4월
3	토	선교연구원 제12기 2학기/	선교연구원		LMTC 과정
		13기 1학기 개강			(6/30 종강)
4	주일	2차 성찬식	예배위		
6	화	주간성경공부 1학기 개강	성경연구원	교육위	12주(6/5 종강)
		제24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성경연구원	찬양위	12주(6/5 종강)
7	수	정기 당회	당회 서기		
8	목	충현경로대학 1학기 개강	충현경로대학		12주(6/7 종강)
11	주일	정기 제직회	제직회	당회 서기	
		장학금 수여식	충현장학회		전반기
		제53기 교사양성부 개강	성경연구원		12주(6/3 종강)
25	주일	공동의회	당회 서기		직분자 선출안

4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교구영성훈련	교구위		4~5월
		대심방	교구위		3~6월
		남성구역장 훈련	교육훈련원	교구위	3~4월
4	수	정기 당회	당회 서기		
11	수	임시 당회	당회 서기		직분자 후보심의
8	주일	종려주일			
9-14	월-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당회	교구위	전교인금식(금)
11-12	수-목	교사단기수련회	성경연구원	교육위	
15	주일	부활절예배	예배위		
		부활절 특별 찬양예배	예배위	찬양위	벧엘, 고등부찬양대
22	주일	2차 학습세례식			
29	주일	공동의회	당회 서기		직분자 선출

5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교구영성훈련	교구위		4~5월
		대심방	교구위		3~6월
		33대 장로 장립식	당회 서기		
		피택자 교육 실시	교육훈련원	교구위	
1	화	충현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교구위	
6	주일	3차 성찬식	예배위		
		어린이 주일	예배/교육/찬양위		
9	수	정기 당회	당회 서기		
13	주일	어버이 주일	교육위		

6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대심방	교구위		3~6월
3	주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위		
6	수	정기 당회	당회 서기		
10	주일	정기 제직회	제직회	당회 서기	
24	주일	3차 학습세례식	예배위	교구위	

7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여름성경학교/여름수련회	교육위/각기관		7~8월
		하기전도대 파송	전도위	교구위/2교육위	7~8월
		단기선교 파송	선교위		
		제2회 전국 학생 찬양대회	찬양위		고등부 중등부문
1	주일	4차 성찬식	예배위		
		맥추감사절 예배	예배위		
		맥추감사절 특별 찬양예배	예배위	찬양위	아멘찬양대
4	수	정기당회	당회 서기		

8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여름성경학교/여름수련회	교육위/각기관		7~8월
		하기전도대 파송	전도위	교구위/2교육위	7~8월
		단기선교 파송	선교위	교육위	
		후반기 장학생 선발	충현장학회		
8	수	정기당회	당회 서기		
15-18	수-토	제7회 전국찬양대지도자 강습회	찬양위		지휘자, 반주자
26	주일	4차 학습세례식	예배위	교구위	

9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절기구제	봉사위		
		대심방	교구위		9~11월
		교구영성훈련	교구위		9~10월
		남성구역장 훈련	교구위		9~10월
1	토	선교연구원 제12기 3학기/	선교연구원		LMTC 과정
		13기 2학기 개강			(12/15 종강)
2	주일	5차 성찬식	예배위		
		교회설립기념 감사예배	예배위		
		교회설립기념 특별 찬양예배	예배위	찬양위	할렐루야찬양대
4	화	주간성경공부 2학기 개강	성경연구원	찬양위	12주(12/4 종강)
		제25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12주(12/4 종강)
5	수	정기 당회	당회 서기		
6	목	충현경로대학 2학기 개강	충현경로대학		12주(11/29종강)
9	주일	정기 제직회	제직회	당회서기	
		장학금 수여식	충현장학회		후반기
		제54기 교사양성부 개강	성경연구원		12주(12/9 종강)

10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대심방	선교위	교구위	9~11월
		교구영성훈련	교역자	교구위	9~10월
		남성구역장 훈련	봉사위	교구위	9~10월
		교역자 수련회	교역자회		
		절기구제			
		청지기 영성 세미나	성경연구원		외국인 강사
10	수	정기 당회	당회 서기		
28	주일	5차 학습세례식	예배위	교구위	
29	주일	종교개혁주일	예배위		

11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장로/권사/권사 임직예배	당회		
		신년도 예산안 심의	기획위	각 기관	
		신년도 직분자 심의	인사위	각 기관	
		대심방	교구위		
4	주일	6차 성찬식	예배위		
7	수	정기 당회	당회 서기		
16	금	제6회 충현 찬양의 밤	찬양위		
18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예배위		

12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총회	각 기관		
		단기선교 파송	선교위		
		절기구제	봉사위		
5	수	정기 당회	당회 서기		결산/예산
9	주일	직분자 임명	인사위	예배위	
16	주일	특별 제직회	당회 서기		결산/예산
		교구 총회	교구위		
23	주일	성탄절 축하 찬양예배	예배위/찬양위		할머누엘찬양대
		6차 학습세례식	예배위	교구위	
24	월	성탄 전야 찬양의 밤	1, 3 교육위		
25	화	성탄축하 예배	예배위		오전9, 11시
26	수	교사총회	1, 2, 3 교육위		
30	주일	은퇴자/근속자 포상	당회 서기	인사위/행정위	
		공동의회	당회 서기		결산/예산

인도자의 편지

예수 믿으세요

전 춘 옥 (집사 , 1교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할렐루야!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그 한 심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그 친구는 절이 좋아 절에 다니며 절에서 결혼을 한 친구다. 가장 친하였지만 신앙면에서는 서로 앙숙이었다.

"친구야, 예수 믿어야해" 하면 얼굴색이 금방 변하던 친구, 미국 이민으로 나와 하룻밤을 지내며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다. "친구야 너에게 줄 선물은 성경책이야. 네가 가장 싫어할 줄 알지만 내가 꼭 주고 싶은 선물이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주는 선물인 것을 잊지말고 생각 잘 해" 라고 건네주며 조용히 기도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리라."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엉엉 울며 뜻밖의 말을 했다. "네가 준 성경책이 이렇게 고마운 것인지 몰랐다." 라고 한다. 그는 성경책을 버리고 갈 마음이었단다. 그러나 나의 얼굴이 자꾸 자꾸 스쳐가 그냥 가져 갔던 성경책이 자기의 꽁꽁 얼은 마음을 녹이며 일독 이독 읽다보니 왜 성경책을 선물했는지 이제야 알았다며 "나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알어?" 라고 하였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쁜데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는 난 처음 오시는 분이면 눈치를 살피다 넌즈시 말을 건넨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다른 종교 갖고 있어요" 한다.

이애자씨, 윤동자씨, 이 두 사람도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이다. 쉽게도 받아 들여 교회에 출석하며 아주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해본다. 며칠 전이다. 애자씨가 기쁜 얼굴로 나를 불렀다. "집사님이 저를 인도하고 저 또한 친구와 남편을 인도 하였어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한 생명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양호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약5:15)

5교구 김재수 집사(남69세) 귀뒤에 암으로 강남병원 592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홀로 살고 있으며 생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고길종 성도(남41세) 직장암과 대장암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 467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불면증과 황달증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성도(남52세) 간암, 간경화로 자가치료중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3교구 황순기집사(여48세) 근 위측성 측상증(A.L.S;세계적인 희귀병으로 치료 불가능)으로 하반신부터 온 몸이 마비됩니다. 오로지 기도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아끼지 마십시오.

새해 새 아침

황 선 혜 (집사, 6교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 새 아침을 주십니다.
지난 해도 올해에도 또 내년에도 주십니다.
새해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무언가 더 잘될 것 같은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날의 근심 걱정은 예수믿고 평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망불평은 예수믿고
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은 예수믿고 행복으로 변합니다.
우리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믿음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때론 넘어지고 슬퍼합니다.
우리를 잡아 일으키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은혜와 용서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 온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항상 새해 새 아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병중 일기

움직일 수 없어도

이 홍 순 (권사, 6교구)

제가 아픈 것이 아니고 제 딸 황순기 집사가 아픕니다. 본래 13교구인데 제가 곁에 두고 간호를 하려고 데려 왔습니다. 병명은 '근 위측성 측삭 경화증' 이라는 것인데 병의 원인도 밝혀진 바가 없고 치료법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불치의 병이지요. 운동신경 세포가 계속 파괴되어 근육의 힘이 빠져버려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처음엔 디스크인줄 알고 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병명을 밝히지 못했었는데 3월부터는 걷지를 못하고 여름부터는 말을 못하기 시작해 근 위측성 측삭경화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음 정도만 겨우 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포기를 해서 집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약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신경세포 파괴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 사진 오른쪽이 이홍순 권사, 왼쪽이 황순기 집사

처음엔 너무나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써 봤습니다. 정형외과도 가보고 신경외과도 가봤지만 하나같이 가망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한번은 어떤 분이 비슷한 병이었는데 한방을 사용해서 고쳤다길래 알아봤더니 다른 병이었습니다. 결국 이 병은 아직 치료사례가 없는 희귀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맘대로 몸을 못 움직이니까 부축하기도 힘이 듭니다. 자신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가족들은 희망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저도 한 때 위암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종대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외우라고 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외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구나' 라는 편한 맘으로 지냈습니다. 소망부에서도 계속 기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씻은 듯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황 집사도 아픈 중이지만 낙심치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충현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픈 중에도 주를 의지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픈 중에도 주를 의지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국학교

예수님을 찬양해요, 언제든지

이 희 자 (집사, 유년부교사)

주일 아침 9시 30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달려나오는 유치부를 갓 수료한 유년부 1학년과 2학년 어린이들. 예배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지만 찬양준비를 위하여 일찍 나오지요. 예쁜 얼굴과 귀여운 모습에 장난스럽기까지 한 어린이들이지만 찬양을 할 때만큼은 진지해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지요.

200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찬양대원이 되기 위해 지난 토요일인 1월 6일에 오디션을 실시한 바, 많은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린이 85명을 정하게 되었지요. 놀랍게도 이 준비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대원임을 알수 있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첫주일 … 놀랍게도 폭설이 내린 주일 아침 일찍부터 오기 시작해서 9시30분 전원의 찬양대원이 출석한 가운데 한명의 어린이도 떠들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지휘자와 반주자에 맞추어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 유년부 찬양대원들이야 말로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을수 없었지요. 그뿐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와 찬양에 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들의 영광과 은혜가 온 천하에 공포하는 것과 같은 맑고도 청아한 목소리가 유년부 예배실을 울리게 하지요.

매년마다 맞이하는 새해, 유치부에서 갓 올라온 어린 친구들이지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 가며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가며 또한 유년부를 통하여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들 속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맑은 눈을 크게 뜨고 동그라한 입을 크게 벌려 찬송하는 이들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제일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년부 찬양대가 하나님께 바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또한 주일마다 찬양을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달려나오는 유년부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들의 미래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큰 일꾼들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나는 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01년도 한해를 다짐해 봅니다. 언제나, 늘 함께하며 겸손하게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듯 섬기겠노라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송 정 배 (소년부 전리반)

나는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7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습니다. 나는 형이나 누나 그리고 동생도 없어서 혼자 잘 때와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빠의 보호자로 병원에 계셨고 아버지는 물리치료로 고생하셔서 두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빠의 사고소식을 듣고 나는 아빠가 혹시 장애를 입지 않을까? 혹시 천국에 가시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차에 걸친 수술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인도하셔서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사고 후 바로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아빠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아빠의 사고로 울었지만 지금은 건강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엄마와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집사님들께서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기도 덕분에 아버지가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아빠는 이제 건강해지셔서 운동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빠의 사고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사랑하는 아빠에게 잘 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제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샘

'역대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❷

두 번째로 역대기를 읽을 때에는 열왕기와 비교해서 읽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왕기를 복습한다는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요. 역대기가 창세기나 열왕기의 내용과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틀림없으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①열왕기를 '선지자적인 관점' 에서 읽고,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 에서 읽어야 하지요.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시각을 말하며, 제사장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예배로의 부름과 소망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②열왕기서에는 '전쟁' 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해, 역대기서는 '성전' 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역대하에 기록된 4대 개혁 * 에 대한 묘사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의 성전 청결 사건의 관점하고도 매우 연관이 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그리고 열왕기서가 '왕권의 운명'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역대기서는 '다윗 계보' 의 연속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시작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요. 다윗의 혈통에 대한 명분은 메시아의 도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④마지막으로 열왕기서가 '도덕성' 을 지적하고 있다면, 역대기서는 '구속' 에 대해 지적하고 있답니다. 이 말은 역대기의 구조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10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다윗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 왕국의 '약속된 메시아' 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과 회복을 기록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왕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해야 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왕' 에 대한 이해랍니다.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되어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나타나는 왕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 이해하게 하는 풍부한 자료가 된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사가랴의 언급(눅 1:68, 69),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왕에게 기름붓던 위임식(눅 3:21, 22),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이는 왕의 행렬(요 12:12-19)과 십자가에 붙어있던 '유대인의 왕' 이라는 서술 등이 모두가 일치하는 것들이랍니다(눅 23:38).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신가요?

* 4대 개혁

① 아사와 여호사밧의 개혁(15장,17장-20장) ② 요아스의 개혁(23:1-24:16),
③ 히스기야의 개혁(29:32) ④ 요시아의 개혁(34, 35장).

(김동하 목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향기

언뜻 스쳐가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작년 봄에 작은 화분 하나를 사왔다. 작지만, 사무실을 환하게 해 주었고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을 자아내게 했다. 은은한 향기가 봄 내음을 느끼게 해 주었고 사무실에 잔잔히 향기가 퍼졌다. 한 달 넘짓 꽃을 보았다. 날이 가니 꽃이 시들어 갔고 잎도 빛깔을 잃어가고 시들어 말랐다. 흙속에 볼품없는 양파 모양의 뿌리만 묻혀 있었다. "다시 자랄까?." 생각하며 물을 주었다. 매일같이 꽃을 보는 화분에만 신경써 물을 주었다. 그 화분은 죽었거니하면서도 물을 주었다. 몇 달이 지나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에 접어들어… 어느날 연두빛 새싹을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 기뻤다! 기뻐서 조금 더 신경써서 물을 주었다. "더 자라면 꽃을 보겠지!" 희망없이 막연히 바랬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아침, 물을 주려다 보니, 자라난 잎 속에 싸여 봉우리를 피우고 있는 꽃을 보았다. 보라빛! 살아있다니! 아! 이 기쁨, 막연한 바램이 내 눈에 보이니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저 물만 주었는데… 흙 속에 묻혀 뿌리가 갈색으로 바래고 겉이 찌그러지고, 처음엔 정말이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뿌리가 흙 속에서 생명을 키우고 있었다. 물만 주었는데. 큰 바램도 아니었고, 내 할 일만 했을 뿐인데, 흙 속에서 아주 조용히 생명이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코를 갖다대니 꽃에서 작년 봄에 맡았던 그 향기가 은은히 풍겨났다. 아! 이 기쁨! "아버지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오면 그저 나는 자라고 그 분의 향기가 은은히 풍겨지겠죠. 더 자라서 꽃송이가 커지면 온 사방에 그 분의 향기를 피우겠지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 그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5

(이숙향)

교회소식 / 새가족 소개

알 림

1. 28일자 주간충현 광고마감 안내
구정 연휴관계로 28일자 주간충현 광고를 다음주일(21일)까지 마감합니다.
2. 결혼준비반 개강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신혼가정부에 결혼준비반 과정이 있습니다.
대상 :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장소 : 교육관 202호
등록절차 : 지원서작성
(평일 :사무국, 주일:신혼가정부실)
교육일시 : 매주일
오전10:50~12:30, 8주간
3. 회계실무교육
일시 : 28일(주일) 15:00
장소 : 교육관 307호
대상 : 각위원회산하전부서총무및회계
4. 이 · 미용 봉사 지원 신청
농어촌 봉사때 이 · 미용봉사를 지원받기 원하는 교구에서는 봉사일정 2개월 전에 이 · 미용전도회에 지원요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 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15일(월)새벽기도회 후
장소 :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16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베다니홀
3. 전도위원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30
장소 : 전도위원회실
4. 건축위원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6:00
장소 : 선교관 5층 회의실
5. 경찰전도회 속회 총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예추라기홀
6. 권사 2 · 3지회 월례회
일시 : 17일(수) 수요1부예배 후
장소 : 갈릴리홀

남녀전도회

1. 바울 5지회 월례회
일시 : 21일(다음주일) 15:00
장소 : 교육관 201호
2. 바울 6지회 총회속회 및 월례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교구모임장소
3. 바울 9지회 월례회
일시 : 15일(월) 18:00
장소 : 군산횟집(3392-5425)
4. 바울 10지회 월례회
일시 : 20일(토) 18:00
장소 : 장영환 집사댁
(도봉구 쌍문동 한양APT 604-509)
5. 베드로 4지회 월례회
일시 : 20일(토) 19:00
장소 : 유기명 집사댁(582-9721)
6. 베드로 6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9:00
장소 : 김현철 집사댁(403-0780)
7. 베드로 7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9:00
장소 : 큰댁설렁탕
8. 베드로 9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9:00
장소 : 삼오정(433-6555)
9. 베드로 11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 교육관 212호
10. 요한 2지회 월례회
일시 : 20일(토) 15:00
장소 : 교육관 109호
11. 요한 6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 교육관 407호
12. 요한 14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9:30
장소 : 박종율 집사댁(2648-2516)
13. 한나 1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 제2교육관 203호
14. 한나 2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 호산나 찬양대 연습실
15. 한나 5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 교구모임장소
16. 한나 6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 탁아부실
17. 한나 9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 갈릴리홀
18. 한나 10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 복지관 지하1층
19. 한나 11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 교육관 212호
20. 한나 14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 예추라기홀
21. 한나 16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 교육관 414호
22. 한나 17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0:30
장소 : 삼성백화점(분당)만남의 광장
23. 에스더 7지회 월례회
일시 : 21일(다음주일) 교구모임후
장소 : 아멘홀
24. 에스더 8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2:00
장소 : 한우3년생(방지거병원옆)
25. 에스더 9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1:00
장소 : 청량리 박서방네 잔치집
(959-3779)
26. 에스더 11지회 월례회
일시 : 15일(월) 11:00
장소 : 한수경 집사가게(2279-9979)
27.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일시 : 21일(다음주일) 15:00
장소 : 영아부실
28. 루디아 1지회 월례회
일시 : 15일(월) 10:30
장소 : 영아부실
29. 루디아 4지회 월례회
일시 : 18일(목) 11:00
장소 : 박미순 집사댁(532-3473)
서초 한양APT 6동1008호
30. 루디아 5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0:30
장소 : 초막집
31. 루디아 6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1:00
장소 : 이필순 집사댁(403-7155)
32. 루디아 9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2:00
장소 : 한사랑뷔페(951-7400)
33. 루디아 14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1:00
장소 : 회장댁(개봉동 영화 APT
102동 1201호)
34. 루디아 16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1:00
장소 : 평촌 뉴코아뷔페
35. 마리아 6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1:00
장소 : 장혜선 집사댁(423-5092)
우성APT 23동 1103호
36. 마리아 7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0:30
장소 : 칼빈홀
37. 마리아 10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0:30
장소 : 정영자 집사댁(934-7886)
38. 마리아 13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2:00
장소 : 칼빈홀
39. 마리아 14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1:00
장소 : 정경애 집사댁(866-8269)
40. 마리아 17지회 월례회
일시 : 16일(화) 10:30
장소 : 조옥례(262-6066)
용인 수지 삼성1차 105동 802호

별 세

1. 원형신 권사
(12교구 불광구역) / 5일 별세, 8일 장례
2. 김규자 타교 은퇴권사
(김영란 권사의 친정모친, 15교구 봉천10구역) / 9일 별세, 11일 장례
3. 김정섭 타교 장로
(김회수 집사의 부친, 이광주 성도의 장모, 1교구 대례란6구역) / 9일 별세, 11일 장례

결 혼

1. 조윤현 군(2교구)과 백영회 양(백시용 목사의 딸)/ 16일(화) 갈릴리홀
2. 유석근 군(유인준 씨, 이영숙 씨의 딸)과 김유진 양(김병남 성도, 심영숙 집사의 딸, 6교구)/ 20일(토) 13:30 연리지예식홀 1층 특실
3. 김영준 군(김구현 집사, 정미자 권찰의 딸, 11교구)과 박미란 양(박완신 장로, 홍경순 권사의 딸)/ 20일(토) 14:00 소망교회 선교2층 제1예배실

교회 직원 모집

1. 근무직 및 자격
① 기사직 : 50세 전후의 남자 세례교인, 대형1종 운전면허 소지자, 버스운전 경력자
② 영선(목공)직 : 50세 전후의 남자세례교인, 목공일에 경험이 많은 자
③ 미화부 : 40-50세 전후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신체건강한 자
2. 제출서류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자격증 사본
④ 자기소개서 ⑤타 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3. 서류 제출처 및 문의 : 충현교회 사무국(강남구 역삼동 665-1 ☎552-8200 # 412번)

충현중보의창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⑥ 충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	김옥례	1	에스더	이미선(1)	25	이두원	14	바울	
16	풍영란	1	청년1부		26	박지현	3	고등부	
17	이익자	4	루디아	오귀봉(4)	27	이형구	15	청년2부	
18	홍현용	5	베드로	최종란(1)	28	이미향	15	청년2부	
19	문은숙	6	청년2부	윤정순(6)	29	이옥순	17	한나	김동수(10)
20	이학현	7	베드로	김광순(7)	30	안효성	19	청년1부	
21	신묘순	7	루디아	김광순(7)	31	조래정	19	청년1부	김경애(10)
22	이지선	7	고등부	김광순(7)	32	최용대	9	청년1부	홍성미(1)
23	고찬걸	9	바울	최지윤(10)	33	이선덕	15	루디아	박진숙(15)
24	박란주	10	청년2부	강신근(10)	34	김용조	19	청년2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직 앨범 사진촬영

① 촬영 대상 : 45주년 제직 앨범에서 누락된 제직 / 1999년 12월에 임명받은 2000년도 남 · 여 서리집사(찍었던 분도 다시 오세요) 2000년 12월에 임명받은 2001년도 남 · 여 서리집사
② 촬영 기간 : 2001년 1월 21일(주일)까지 주일만 촬영
③ 촬영 시간 : 주일 오전10시에서 오후4시30분 사이에 방문하여 촬영할 것
③ 촬영 장소 : 선교관 408호 홍보실
④ 주의 사항 : 촬영날짜를 지킬 것(날짜를 넘기면 더 이상 받지 않음) 45주년 제직앨범(청색앨범)에 나와 있는 제직은 다시 찍지 않음. 사진을 가져오는 것은 받지 않음

교회오시는길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동길' 성도를 소개합니다

10여년 전에 잠깐 교회에 다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 제대 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 그러던 중 논현동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충현교회로 오게 되었다.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루어 온 오랜 숙제를 끝낸 안도감과 평안함에 마음이 즐겁다고 한다.

'김우영 · 김효숙' 부부를 소개합니다

우리교회 근처에서 살 때에 아이들이 교회학교에 다녔다. 그 당시 아이들의 선생님이었던 강정희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한동안 교회 나오지 않다가 아이들에게 열심이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강렬하게 남아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된 생활에서 자꾸 멀어지고 마음이 변화받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한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장	조선근 기획위원	김은호 성경연구원감	노광헌 당회 서기
오진국 탁아부장	이병학 교구위원장	윤인현 선교위원	최대원 봉사위원장
엄필성 청년3부장	강모용 봉사위원	오정헌 1교구장	이 훈 찬양위원장
남선우 3교구장	서동석 당회부서기	정운석 8교구장	김영길 제16교구장
문홍구 봉사위원	조인제 유아원감	김종구 17교구장	최무길 예배위원장
김천채 할렐루야찬양대장	이창호 사랑부장	차신득 감사위원장	김재명 행정위원장
박영식 봉사위원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5교구장	윤성철 기획위원장
이하영 전도위원장	박인건 13교구장	김인관 6교구장	이병옥 제3교육위원장
안종욱 재정위원	최명환 7교구장	임무천 제2교육위원장	이종섭 청년2부장
최기홍 예배위원	이갑재 15교구장	진홍용 건축위원장	전홍렬 9교구장
이정우 새가족부장	김단용 제1교육위원장	황영일 건축위원	손 철 4교구장
한송규 신혼가정부장	김영수 선교위원	정홍식 전도위원	김환기 기획위원
원응철 12교구장	이형수 청년1부장	안동현 아멘찬양대장	황의만 대학부장
김구형 고등부장	최윤덕 실로암찬양대장	이계인 임마누엘찬양대장	박덕양 예배위원
이태식 10교구장	정태두 전도위원	박홍규 가브리엘찬양대장	권명옥 벧엘찬양대장
최성현			

■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이승수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 교육목사 정준회
■ 선교사 정은회(수단) 권영일(수단) 아브라함외 47명(수단)
허용구(르완다) 추진회, 이소영(스리랑카) 추은회(우간다)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 강기엽(수단)
■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김영기 이종태
■ 여전도사
정연희 김정자 최지혜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 교정전도사 박양덕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